

국회 앞 文정부 규탄 1만명 민중대회

1일 문재인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 등이 모여 진행한 대규모 집회와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농민외길,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50여개 단체가 모인 민중공동행동(민중행동)은 여의도 곳곳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노점 관리 대책 폐지 등을 주장하며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오후 3시부터 '2018 전국민중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권 퇴진을 요구하던 과거 '총궐기 투쟁'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민중대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주최측 추산 1만5000명, 경찰 추산 1만여명이다.

민주행동은 본집회를 마치고 오후 4시부터 5시20분까지의 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 당사 방향으로 농민 및 빈민 단체가 포함된 나머지 민중행동 인원은 서강대교 방향으로 나아갔다.

민중행동은 당초 '국회 포위'를 공개적으로 내걸고 의사당대로 양방향 전(全)차로에서 행진을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제한통고 조치가 내려져 막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민중행동 집회·행진으로 국회 기능이 침해될 것을 우려, 기존 신고 행진로 중 국회 좌우측길인 '의원회관 교차로~국회 5분 앞방항 전차로', '서강대교 남단~국회 5분(북문) 진행방향 전차로(850m)' 경로에 대한 제한통고를 내렸다.

민중행동은 이에 반발해 집행장지 가져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주최 측은 이날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으로 행진하고 농민, 빈민 대오는 인간띠잇기 종료 후 그 자리에서 정리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 안쪽 도로로는 행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띠잇기도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이 국회 정문 방면 앞 3~4개 차로까지 차벽과 병력을 배치했고, 민주노총 측이 계획과 달리 오후 5시10분께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해산해 버렸기 때문이다. 서강대교 방면으로 향한 민중행동 무리도 비슷한 시각 대교 앞에서 집회를 한 뒤 해산했다.

이날 '민중행동은 "공약 미이행, 친재벌 정책 등 촛불 민의와 멀어지고 있는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며 "각종 요구의 조정이 되는 국회에 개혁 입법을 촉구하고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세력을 규탄한다"고 이번 대회 취지를 밝혔다. 김병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朴정부 시절 2015년 민중총궐기 이후 3년만 주최 측 추산 1만5000·경찰 추산 1만여명 경찰 제한통고 조치로 '국회 포위'는 무산 "문재인 대통령, 촛불 민심과 점점 멀어져"

사전대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산 임법위 확대로 의미가 없어졌고, 속도조절에서 더 나아가 추가 개악을

앞두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촛불 민심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시



정치기 하는 시민들 전북 전주시 충경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및 에너지 전환 박람회 1일 충경로 일대에서 실시된 가운데 시민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정치기를 하며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다.

장애인·노인 부양의무 굴레 사라진다...내년 기준완화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 폐지

가족 중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거나 본인이 한부모 가구인 경우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에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에 따라 3월부터 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4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본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때 지원된다.

본인이 수급자 소득인정액(내년 4인 기준 생계급여 월 13만1원) 이하로 소득이 낮더라도 부모나 자식 등 1촌 직계혈족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소득이 있으면 수급 신청 시 탈락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본

인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도 선정되지 않은 저소득층 가운데, 부양의무자 가구가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급하면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된 약 4만 가구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예초 내년 1월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연금 수급자부터 부양의무 책임에서 제외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7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 1월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완화 시기를 3년 앞당겼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기준이 완화된다. 의료급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구부터 지원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에 상관없이 급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투쟁으로 박살 내자 "비정규직 양산하는 탄력근로제 박살 내자" "해고는 살인이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말로만 노동존중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문재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등의 구호도 외쳤다.

이번 집회는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연 이후 3년 만이다.

남수단 식량배급소서 여성 125명 성폭력 피해

남수단에서 지난달 19일부터 29일 사이 열흘 동안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등 공격이 크게 증가해 이 기간 15명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성폭행과 체적질 등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구호요원들은 그 잔혹성에 할 말을 잃었다고 '국경없는의사회'가 1일 밝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여성들이 남수단 벤틀우주의 식량 배급소를 찾았다가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경없는의사회 벤틀우 지부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치료한 성폭력 피해 여성 104명을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급증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오랜 내전을 겪은 남수단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빈발하고 있다. 최근 평화협정이 체결됐지만 사람들은 구호를 기다리느라 절망한 상태이며 여전히 성폭력의 위험은 높은 상태라고 인도주의 운동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성폭행 피해 여성들 가운데에는 임신부와 할머니, 불과 10살의 어린 소녀까지 포함해 있다고 말했다.

루스 오엘로라는 여성은 지난주 식량배급소를 찾았다가 식량배급표를 빼앗기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국경없는의사회는 말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며 할 말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엔 구호 책임자 데이비드 시어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며 남수단 당국에 범인들을 체포,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남수단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논평도 내지 않고 있다.

佛 시위, 13년만에 최악 폭력...110명 부상

기름값 인상에 항의하는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대가 1일(현지시간) 자동차들을 불태우고 삼점 유리창을 부수는가 하면 개신문에 다양한 색으로 노란 조끼가 승리한다는 낙서를 하는 등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10여년 래 최악의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

분노한 시위대와 최루가스 및 물대포로 시위대를 해산시키려는 진압경찰 간 충돌로 최소 110명이 부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 20) 정상회담이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위대의 폭력을 비난하며 경찰을 공격하고 개신문 파괴한 자들은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은 이어 2일 시위에 대한 긴급 각료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폭력은 결코 합법적 분노에 대한 의사 표현과 관계없다. 어떤 것도 경찰에 대한 공격이나 삼점 악탈 및 건물 방화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나 시위에 관해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파리는 3주 연속 주말에 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날 폭력 시위는 2005년 이후 최악이다.

마크롱 대통령 집권 이후 최대 도전이 되고 있는 이번 '노란 조끼' 항의 시위를 모방한 시위가 벨기에와 독일, 네덜란드 등지에서도 발생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위상도 타격을 받고 있다.

파리 경찰은 110명의 부상자 가운데에는 경찰 20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224명의 시위대가 이날 폭력 시위로 체포됐다.

크리스토프 카스텔너트 내무장관은 TF1 채널에 부상자 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말했다.

美 알래스카 앵커리지 부근 규모 7.0 강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부근에서 11월30일(현지시간)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도로와 철도가 폐쇄되고 건물들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AP 통신 CNN 등이 보도했다.

미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8시29분 앵커리지에서 북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 USGS는 이번 지진의 깊이는 40.9km로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아직까지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지진 직후 알래스카 해안 지역에 쓰나미(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됐지만 곧 해제됐다. 쓰나미 경보가 해제된 이후에도 여진은 이어졌다.

본진에 이어 규모 5.7의 여진이 감지되기도 했다.

빌 워커 알래스카 주지사는 앵커리지 일대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진으로 앵커리지 건물, 가로등과 나무들이 크게 흔들렸으며 진동에 놀란 시민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으며 일부 시민들은 책상 등에 몸을 숨겼다. 앵커리지 인구는 약 30만명이다. 이번 지진으로 알래스카 공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한동안 금지됐다.

뉴스시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검진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